

2025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
경계를 넘다

함께한 시간의 기록

2025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 경계를 넘다

함께한 시간의 기록

2025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 경계를 넘다
함께한 시간의 기록

주최·주관 **완주문화재단**



협

력 늘푸른그물중, 디에공동체, 마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문화공동체 아리아리, 은혜의 동산, 예수제활원, 완주군수어통역센터,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이랑활동조합

후



완주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인**

2025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 경계를 넘다

함께한 시간의 기록

CONTENTS

04 축제 개요

08 축제의 시작과 끝

- 10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4 기획단 구성 및 운영
- 18 현장점검
- 20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 개막식, 공연, 체험, 전시
- 30 '함께'여서 가능한, 공감 토크콘서트
- 32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활동
- 36 완주무장애예술축제'서로' 경계를 넘다 접근성 피드백 및 평가

38 축제를 준비하며 만나다_인터뷰

- 40 늘푸른그룹홈_유연주
- 41 다애공동체_정연아, 김은숙, 정은아
- 43 마루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_유도담, 양지수, 이점이, 박서희
- 45 문화공동체 아리아리_신경순, 양인선, 김재이
- 47 예수재활원_양희훈, 하구은, 하구혜, 허은지, 홍귀범
- 50 완주군장애인복지관_조정자, 정금옥, 박양례, 배춘자 이현숙, 이인순, 정미자
- 53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_김정임, 최명자
- 55 완주군수어통역센터_이오순 센터장
- 53 은혜의 동산_한경희, 정우상
- 57 이랑협동조합_최대희 센터장

58 함께 전한 이야기

64 보도자료 및 홍보

70 축제를 마치며



01 축제 개요

축제 개요

축 제 명 :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 경계를 넘다

일 시 : 2025. 11. 4.(화) ~ 11. 16.(일)

장 소 : 복합문화지구 누에 일대
(전시 : 누에 아트홀 1·2 전시실)

참여대상 : 장애·비장애예술인, 장애인 지원 기관·시설·단체 관계자, 완주군민 등

관람객 수 : 총 2,350여명 (공연 및 개막 700명, 전시 1,150명, 부대 프로그램 500명)

참여예술인 : 총 109명 (장애예술인 94명, 전문예술인 15명)

추진목적 : 장애 당사자 참여를 기반으로 접근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 비장애가 함께하는 무장애 문화 향유 축제 구현

내 용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경계를 넘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연, 전시, 체험 중심의 무장애 문화예술축제 운영



참여기관 현황

- 총 참여기관 : 10개 기관

- 총 참여자 : 109명(장애예술인 94명, 전문예술인 15명)

기관명	관계자	기관 소개	비고
늘푸른그룹홈	김화순 대표	늘푸른그룹홈은 2010년부터 완주군 용진읍 효천마을에서 4명의 발달장애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그룹홈)이다.	전시 체험
다애공동체	송예랑 팀장	완주군에 위치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다애공동체'는 개별 지원을 통해 18명의 여성 이용인이 각자의 관심과 욕구에 따라 다양한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몸과 마음이 행복한 주체로 살아가게끔 기여하고 있다.	전시
마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박은천 센터장	마루발달센터는 만 18세 이상의 완주군 거주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위한 무료 주간활동시설이다.	공연 전시
문화공동체 아리아리	김언경 대표	'아리아리'는 "길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나아가자"는 뜻의 순우리말이다. 정신질환을 가진 이들이 사회에서 설 자리를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문화공동체 아리아리는 문화활동을 매개로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권익 회복과 자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공연
은혜의 동산	임평화 원장	은혜의 동산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 26명이 함께 생활하는 장애인 거주시설로, "더불어 살자"는 슬로건 아래 공동체적 삶을 이어가고 있다.	전시 체험
예수재활원	이승철 원장	1991년 12월 20일에 설립된 예수재활원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지적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주도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주시설이다.	공연 전시
완주군 수어통역센터	강지현 사무국장	완주수어통역센터는 완주지역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 서비스, 상담, 수어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청각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데 앞장서고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체험 수어통역
완주군 장애인복지관	배진숙 팀장	완주군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권리를 기반으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 사회와 연대를 더불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공연 전시 체험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이은용 팀장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가족 구성원의 보호 부담을 경감시켜 경제적 향상 및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공연
이랑협동조합	최대희 센터장	'이랑'은 갈아놓은 밭의 한 두둑과 한 고랑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두둑과 고랑처럼 서로 다르지만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자는 조합의 이념과 가치를 담고 있다.	토크쇼



02

축제의 시작과 끝

축제의 시작과 끝

✧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 간 : 2025. 8. ~ 11.

목 적 : 축제 참여 장애인 기관·단체의 실무자 및 관계자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여 완주무장애 예술축제 '서로'의 기획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지역사회 협력을 기반으로 한 축제 운영 환경을 조성하여 축제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함.

역 할 : · 축제 방향 및 기본 계획 결정
· 프로그램 진행 상황 모니터링 및 조율
· 축제 접근성 점검 및 지원 사항 마련
·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
· 축제 종료 후 피드백 수집 및 평가

구 성 : 총 10명

추진위원장 : 이승철 원장(예수재활원)

김화순 대표(늘푸른그룹홈), 송예량 팀장(다애공동체)

박은천 센터장(마루 발달장애인주간활동 서비스센터)

임평화 원장(은혜의 동산), 김언경 대표(문화공동체 아리아리)

강지현 사무국장(완주군수어통역센터), 배진숙 팀장(완주군장애인복지관)

이은용 팀장(완주군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최대희 센터장(이랑협동조합)

추진위원회 구성 회의



일 시 : 2025. 8. 21.(목) 14:00 ~ 15:00

장 소 : 완주문화재단 누에 실마리 카페

참여인원 : 총 12명

내 용 : · 무장애예술축제 추진위원회 구성 필요성 논의
· 추진위원장 이승철 원장(예수재활원) 선임
· 축제 취지에 맞는 기획 및 실행 방향 논의
· 축제 기획 단계에서 장애인 참여와 접근성 확보 필요성 논의
· 축제 일정 및 비장애인 참여 증진 방안 논의

목 적 : 추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과 운영 방안을 논의하고, 축제 기획 단계에서 장애인 참여와 접근성 확보, 비장애인 참여 증진 등 주요 방향성을 설정하기 위함.

추진위원회 2차 회의



일 시 : 2025. 9. 8.(월) 14:00 ~ 15:00

장 소 :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참여인원 : 총 13명

- 내 용 :**
- 개막 퍼포먼스 '박 터트리기' 제안 및 구성 논의
 - 참여기관 전시회 세부 프로그램 신청 양식 공유 및 취합
 - 전시회 음성가이드 제작 검토
 - 체험 프로그램 부스 운영 수요 조사
 - 프로그램 및 전시, 체험 부스 운영 시 장애인 접근성 고려 사항 논의
 - 공연 시작 시간, 타임테이블, 공연장 세팅, 축하 공연 팀 논의
 - 토크콘서트 운영 논의, 실마리카페 대관 확정, 네이버 폼 사전 신청 운영
 - 먹거리 부스 운영 계획(미니 붕어빵/늘푸른그룹홈)
 - 음료 나눔 부스 운영 예정

목 적 : 주요 프로그램 운영 계획과 장애인 접근성 사항을 점검하고, 세부 진행 방향과 협력 사항을 조율하기 위함.

추진위원회 3차 회의



일 시 : 2025. 9. 19.(금) 14:00 ~ 15:00

장 소 :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참여인원 : 총 12명

- 내 용 :**
- 축제 시작 시간 2시 및 체험 프로그램 11시부터 자율 운영
 - 개막 퍼포먼스 '박 터트리기' 2팀으로 구성, 참여기관별 5명씩 총50명 참여
 - 홍보물 제작과 작품사진 제출 기한 협조 요청
 - 장애인 모니터링단 운영 취지 및 실행 방법 논의
 - 객석 휠체어석 및 이동 동선 등 접근성 관련 점검
 - 축제 당일 중 석식 제공 및 참여자 수 확정
 - 축제 경품 추첨 운영 계획 확정
 - 명찰 제작 및 참여기관 참여자 명단 정리
 - 영상 아카이빙 제작 안내
 - 축제 사회자 섭외 완료
 - 토크콘서트 제목 및 운영 방식 주최 측에 일임

목 적 : 개막 퍼포먼스, 체험 프로그램,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단 운영, 홍보 및 영상 기록 등 주요 운영 사항에 대한 협의와 조율하기 위함.

✧ 기획단 구성 및 운영

기 간 : 2025. 8. ~ 11.

목 적 : 추진위원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의 세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며,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중심으로 프로그램 내용과 운영 방식을 설계하여 축제 현장의 원활한 운영과 준비 과정을 관리함.

역 할 :

- 체험,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 일정, 장소, 참여자 등 세부 운영 계획 수립
-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접근성 확보
- 축제 홍보 및 참여 유도 전략 실행
- 축제 종료 후 피드백 수집 및 평가

구 성 : 총 11명

추진위원회 추천인 9명 + 추진위원장 1명 + 퍼실리테이터 1명
 송기준 시설장(다애공동체), 배진숙 팀장(완주군장애인복지관)
 박은천 센터장(마루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
 임정화 팀장(은혜의 동산), 최대희 센터장(이랑협동조합)
 김언경 대표, 김재이(문화공동체 아리아리)
 박경옥 교사, 허은지(예수재활원)
 이승철 원장(추진위원장), 양승수(퍼실리테이터)

기획단 구성 회의



일 시 : 2025. 8. 26.(화) 16:00 ~ 17:00

장 소 : 완주문화재단 누에 실마리 카페

참여인원 : 총 13명

내 용 :

- 축제 소주제 설정을 통한 프로그램 목적 및 범위 조정
- 무장애 개념을 강조한 장애인 당사자 중심 운영
- 개막식 퍼포먼스 '박 터트리기' 진행 및 현수막(박) 문구 제안
- 체험 프로그램(미니장구키트 100개) 운영 계획
- 작품 자유 주제로 진행되는 전시 운영 계획
- 토크콘서트 일정, 운영 계획, 섭외 상황 공유
- 축제 스토리텔링 강조 및 기록 아카이빙 계획
- 축제 관련 영상 제작 계획

목 적 : 축제의 목적과 범위를 조정하고, 기획단 구성에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하여 주요 프로그램과 운영 방향을 협의하기 위함.

기획단 2차 회의



일 시 : 2025. 9. 19.(금) 14:00 ~ 15:00

장 소 :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참여인원 : 총 13명

- 내 용** :
- 내빈과 함께 진행하는 퍼포먼스 아이디어 제시
 - 공연 시간 지연방지를 위한 타임테이블 조정
 - 객석 휠체어석 배치 요청
 - 장애인 참여자 편의를 위한 사전 안내 및 안내자료 제작 검토
 - 각 참여기관 체험 프로그램 부스 설치
 - 전통 의복 체험 프로그램과 포토부스 운영 계획
 - 쿠폰 제작 및 경품 추첨 이벤트 활용 방안 논의
 - 축제 당일 인력 총원 계획 및 장애인 인식 사전교육 필요성 검토
 - 굿즈 제작 아이디어 공유

목 적 : 개막 퍼포먼스, 체험 프로그램, 장애인 참여 편의, 체험 부스 등 주요 운영 사항을 점검하고, 세부 진행 방향과 준비 사항을 협의하기 위함.

기획단 3차 회의



일 시 : 2025. 9. 26.(금) 14:00 ~ 15:00

장 소 :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참여인원 : 총 12명

- 내 용** :
-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고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장애인 모니터링단 운영
 - 중식 및 석식 제공, 인원 구성 및 저녁 메뉴 수요 조사 투표 진행
 - 식사 장소로 깨금밭 놀이터 및 오픈 공간 활용 협의
 - 공연장 안전 관리 및 사전 안전 교육 필요성 검토
 - 공연 및 전시 관련 보험 가입 진행
 - 리허설 일정 공지 예정
 - 명찰 제작 및 인원 명단 확인
 - 기관 홍보영상 제작 희망 여부 투표 진행

목 적 : 장애인 모니터링단 운영 방안, 공연 및 전시 안전 관리 등 축제 진행 단계의 세부 운영 사항을 결점하고 준비를 점검하기 위함.

추진위원회 및 기획단 현장점검



일 시 : 2025. 11. 3.(월) 14:00 ~ 15:00

장 소 : 복합문화지구 누에 잔디광장

참여자 : 추진위원회, 기획단, 완주문화재단 관계자, 축제 관계자, 축제 참여자

참여인원 : 총 20명

내 용 : 축제 현장 안전점검 및 접근성 지원 확인

- 휠체어 이동통로 확보 및 전용석 마련
- 쉬운 현장 안내도 배치
- 접근성 검토 및 지원
- 수어 통역사 배치 / 전시 음성 가이드 제공 / 수어 전시 해설 영상 지원 / 점자 리플렛 배치
- 축제 스태프 대상 장애인 활동 지원 사전교육 진행

목 적 : 축제 준비 단계에서 추진위원회 기획단이 현장 안전관리와 접근성 지원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여, 장애인 참여자의 실제 이용 환경을 고려한 축제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 _ 개막식



일 시 : 2025. 11. 4.(화) 13:50 ~ 14:40

장 소 : 복합문화지구 누에 잔디광장

관람객수 : 총 700명

내 용 : 완주 장애인 합창단 '꽃' 축하 공연
개막식 및 개막 퍼포먼스 '박 터트리기'

목 적 :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의 시작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개막 행사를 통해 축제의 지향점과 무장애 문화향유의 가치를 공유하고자 함.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 _ 공연



일 시 : 2025. 11. 4.(화) 14:40 ~ 16:00

장 소 : 복합문화지구 누에 잔디광장

관람객수 : 총 700명

참여 예술인 : 총 109명 (장애예술인 94명, 전문예술인 15명)

내 용 : 1부

- 축하공연_완주 생문동(풍물 고고장구)
- 마루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생활체조 천태만상)
- 문화공동체 아리아리(다큐+영상편지)
-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댄스 내가 제일 잘나가)
- 축하공연_무용가 안윤(진도북춤)

2부

- 예수재활원(풍물 설장구)
- 완주군장애인복지관(댄스 뿐이고)
- 축하공연_ 조이폴(타악 퍼포먼스)

목 적 :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인이 함께 구성하고 참여하는 무대를 운영하여, 무장애 공연 환경 속에서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과 공동 참여의 가치를 관객과 함께 공유하고자 함.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 _ 체험



일 시 : 2025. 11. 4.(화) 11:00 ~ 16:00

장 소 : 복합문화지구 누에 잔디광장

참여자수 : 총 500명

내 용 : 스탬프 투어와 함께하는 즐거운 체험 프로그램

목 적 : 스탬프 투어와 연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이동하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무장애 체험 운영을 통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세데헌, 전통의복으로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 _ 전시



일 시 : 2025. 11. 4.(화) ~ 11.16.(일)

장 소 : 복합문화지구 누에아트홀 1, 2 전시실

관람객수 : 총 1,150명

참여 예술인 : 총 60명

내 용 : 장애문화예술인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경계 없는 '예술'

목 적 : 장애문화예술인의 작품과 시선을 중심으로 한 전시를 통해 예술 표현의 다양성을 확장하고, 음성 안내, 수어 해설, 점자 안내 등 접근성 지원이 반영된 환경 속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편안하게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전시 경험을 제공하고자 함.



공연 기관 및 참여자

장르	기관	참여자
합창	완주장애인합창단 '꽃'	강경숙, 고근영,곽정미, 국세미나, 권남기, 감동혁, 김승관, 김언경, 김형석, 남동희, 박경옥, 박정아, 박정운, 송혜형, 신경순, 양단영, 양인선, 유종섭, 이 신, 이승철, 이옥임, 이원상, 이은정, 임정화, 정규환, 정우상, 하구은, 하구혜, 하민음, 한경희, 허은지, 홍귀범
생활체조	마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강승현, 박서희, 박준호, 서우진, 양지수, 유도담, 이점이, 이정일, 이진혁, 장도현, 정충현
영상 (다큐멘터리)	문화공동체 아리아리	양인선, 신경순
국악 (풍물)	예수재활원 풍물단	양단영, 하구은, 하구혜, 하민음, 허은지
무용 (댄스)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댄스팀	김영애, 김정임, 김현숙, 김호연, 노정순, 박건태, 박현진, 서선교, 소현정, 유태조, 최명자
	완주군장애인복지관 댄스팀	강승현, 김시은, 김형주, 남재옥, 류대곤, 박서희, 박준호, 서우빈, 양지수, 유도담, 유제민, 이인순, 이점이, 이정일, 이진혁, 장덕란, 장도현, 정미자, 정충현, 조은별
초청공연	완주 생문동 고고장구	
	무용가 안윤 '진도복춤'	
	조이풀 타악 퍼포먼스	

체험 기관

장르	기관	내용
체험	은혜의 동산	공예&원예 만들기
	한국장애인부모회 완주군지부	천연 주방세제 만들기
	청춘문화공감	미니 장구 만들기
	완주 생문동	꽃매듭 키링 만들기
		크리스탈 문진 만들기 압화 티코스터 만들기
케데헌, 전통의복으로 체험하다!		
캠페인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인권 캠페인
	완주군수어통역센터	수어 체험
먹거리	늘푸른그룹홈	미니 붕어빵 냄새 따라오면 여기가 맞지요
		오늘의 커피, 여기 있어요!

전시 참여자

장르	참여자
공예&원예	12점 강형순, 김상봉, 남동희, 박은희, 유연주, 정우상, 정호연, 한경희 은혜의 동산(남동희, 최병식), 은혜의 동산(박정운, 한경희)
글쓰기(문학)	10점 국영현, 김군자, 김수정, 김은숙, 박양례, 배춘자, 이현숙, 정금옥, 조정자, 허종단
사진	13점 국동윤, 김우철, 김정기, 김철호, 김화자, 박병익, 배상철, 신경순, 정규환, 정은아, 장 희, 최정호, 이미용, 이희성
설치미술	1점 마루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이점이, 박서희, 유도담, 이정일)
그림(회화)	33점 김시은, 김재이, 노성만, 서우빈, 양단영, 양지수, 유연주, 유제민, 이인자, 이지영, 이혜순, 이효주, 이현준, 정미자, 정연아, 조미건, 최병식, 하구은, 하구혜, 하다숙, 하민음, 허은지, 서대석, 한수연, 한지연
총 69 점	

'함께'여서 가능한, 공감 토크콘서트



일시 : 2025. 11. 15.(토) 10:00 ~ 12:30

장소 : 복합문화지구 누에 실마리카페

관람객수 : 총 80명

출연진 : MC_권주리

패널 영화감독 양준서, 양준서 형제 양준호

특수교사 김신영, 정은혜 형제 서은백

내용 : 비장애 형제의 시선으로 본 삶과 사랑

1부

· 성장 과정에서의 경험 공유

2부

· 연애, 결혼과 가족관계 이야기

· 질의응답 및 청중 참여 토크

축하공연:

· 우크렐레_양준호

목적 :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관계와 삶의 이야기로 바라보는 공감 토크콘서트를 통해, 비장애 형제의 경험을 매개로 서로의 일상을 이해하고 공감의 범위를 확장하며, 청중 참여 중심의 소통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고자 함.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활동 기록지

■ 모니터링 활동 개요

목적 : 축제 운영 전반의 접근성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무장애 프로그램 및 축제 기획 시 기초자료로 활용

범위 : 완주군에 거주하며 2025 완주무장애예술축제에 참여한 단체와 시설에 소속된 장애인으로 구성

기간 : 2025. 11. 4.(월) ~ 11. 16(월)

활동방법 : 축제당일 1회, 전시기간 중 1회

현장심사 후 객관식 위주의 간략한 활동지를 작성

참여인원 : 각 참여기관별 최대 2명, 총 12명

다애공동체(2명), 마루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2명)

문화공동체 아리아리(1명), 예수재활원(2명)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2명)

완주군장애인복지관(2명), 은혜의 동산(1명)

[서식] 2025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활동 기록지

작성서식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활동 기록지 I

□ 일 시 : 2025년 11월 4일(화)
 □ 행사명 : 2025 완주무장애예술축제
 □ 행사장소 : 북원문화지구 노에아트홀 1, 2층 전시실
 □ 평가시기 : 축제 당일 1회

모니터링 항목				
1. 이동 접근성				
1-1. 행사장 접근 및 이동 동선은 편리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아니다.
1-2. 행사장 진입로는 동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아니다.
1-3. 행사장은 휠체어사용자가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아니다.
2. 관람 접근성				
2-1. 행사장 좌석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은 편리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아니다.
2-2. 행사장에는 휠체어석이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아니다.
2-3. 시각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아니다.

3. 정보 접근성				
3-1. 행사장까지의 경로를 안내하는 안내 표지판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아니다.
3-2. 리플렛은 축제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설명)되고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아니다.
3-3.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리플렛을 제공하고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아니다.
4. 서비스 접근성				
4-1. 축제 안내 본부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아니다.
4-2. 장애인이 이동 가능한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아니다.
4-3. 행사장 안내와 안전을 위한 운영요원과 자원봉사자가 잘 배치되어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아니다.
5. 안전 접근성				
5-1. 응급지원부스가 응급상황 발생 시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아니다.
5-2. 주무대 주변에는 무대장지, 음향장지, 전선 등 장애물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아니다.

위와 같이 축제 내부 모니터링 활동 기록지를 작성함

2025년 월 일

모니터링 참여자 : (서명)

작성서식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활동 기록지 II

□ 일 시 : 2025년 11월 4일(화) ~ 11월 16일(일)
 □ 행사명 : 2025 완주무장애예술축제
 □ 행사장소 : 북원문화지구 노에아트홀 1, 2층 전시실
 □ 평가시기 : 전시기간 중 1회

모니터링 항목				
1. 물리적 접근성				
1-1. 전시장 진입로는 장애물의 방해 없이 접근이 편리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아니다.
1-2. 전시장 통로는 동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아니다.
1-3. 전시장에는 공간의 변화를 알리는 이동 안내선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아니다.
2. 정보 접근성				
2-1. 전시안내문은 전시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설명)되고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아니다.
2-2. 전시내용에 대한 음성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아니다.
2-3. 전시내용에 대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아니다.
3. 관람 지원				
3-1. 전시물은 휠체어사용자가 볼 수 있는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아니다.
3-2.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나 휴식공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아니다.
3-3. 전시장 안내를 위한 운영요원과 자원봉사자가 잘 배치되어 있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매우 아니다.

위와 같이 축제 내부 모니터링 활동 기록지를 작성함

2025년 월 일

모니터링 참여자 : (서명)

✳ 항목별 모니터링 결과

평균 만족도는 4.46점, 100점으로 환산 시 85.6점

항목	문항	평균 만족도	100점 환산
이동 접근성	행사장 접근 및 이동 동선은 편리하였습니까?	4.58	91.7
	행사장 진입로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확보하고 있었습니까?	4.42	88.3
	행사장은 휠체어사용자가 이동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까?	4.42	88.3
관람 접근성	행사장 좌석에서 공연을 관람하는 것은 편리했습니까?	4.50	90.0
	행사장에는 휠체어석이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4.58	91.7
	청각장애인 관람객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까?	4.50	90.0
공연 및 체험	행사장까지의 경로를 안내하는 안내 표지판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까?	4.50	90.0
	리플렛은 축제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설명) 되고 있었습니까?	4.67	93.3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 리플렛을 제공하고 있었습니까?	4.17	83.3
서비스 접근성	축제 안내 본부는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까?	4.50	90.0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까?	4.25	85.0
	행사장 안내와 안전을 위한 운영요원과 자원봉사자가 잘 배치되어 있었습니까?	4.42	88.3
안전 접근성	응급지원 부스가 응급상황 발생 시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4.50	90.0
	주무대 주변에는 무대장치, 음향장치, 전선 등 장애물이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4.58	91.7
전시	전시장 진입로는 장애물의 방해 없이 접근이 편리하였습니까?	4.58	91.7
	전시장 통로는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충분히 확보되어 있었습니까?	4.50	90.0
	전시장에는 공간의 변화를 알리는 이동 안내선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까?	4.50	90.0

전시	정보 접근성	전시안내문은 전시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고 간결하게 표현(설명)되고 있었습니까?	4.58	91.7
		전시내용에 대한 음성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었습니까?	4.33	86.7
		전시내용에 대한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까?	4.17	83.3
	관람 지원	전시물은 휠체어사용자가 볼 수 있는 높이에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4.50	90.3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나 휴식공간이 설치되어 있었습니까?		4.50	90.3	
		전시장 안내를 위한 운영요원과 자원봉사자가 잘 배치되어 있었습니까?	4.42	88.3
평균			4.46	85.6

✳ 모니터링 결과 분석

항목	만족도 내용 요약
공연 및 체험	이동 접근성 행사장 접근 및 이동 동선은 편리하였으나 휠체어 이용자의 움직임이 원활할 수 있도록 활동범위를 충분히 고려한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관람 접근성 장애 유형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으로 공연장에서 무대 위의 공연을 관람하는데 편리하였다.
	정보 접근성 점자 표시, 점자 홍보물 등을 장애인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여 시각적으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서비스 접근성 안내본부, 응급지원부는 동선을 우선 고려하여 배치하고 화장실, 안내요원과 자원봉사자 등을 쉽게 구별 할 수 있는 구분이 필요하다.
	안전 접근성 장애물 등의 안전장치와 응급지원 부스 등 안전을 위한 시설은 양호하였다.
전시	물리적 접근성 전시장 진입로의 접근과 통로 및 전시장 안에서의 이동이 편리하였다.
	정보 접근성 전시 안내문은 쉽게 표현되어 보기 편리하였으나 음성가이드, 수어통역의 소통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
	관람 지원 전시장을 안내하는 안내요원과 자원봉사자의 세심한 배치와 안내가 필요하다.

✧ 총평

본 모니터링 조사는 완주무장애예술축제의 장애인 접근성 수준을 진단하고 향후 무장애축제를 기획 할 때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함.

2025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접근성 서비스는 단순한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장애인의 참여와 향유를 돕기 위한 장애인 유형별 다양한 준비와 시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음. 휠체어 이동 통로와 전용석, 자막서비스, 점자 리플렛, 음성 가이드, 수어통역 등 축제 기획부터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미리 고민하고 준비하였으며 안전한 축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고 있음.

다만,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한 모니터링 참여자의 장애 유형별, 생년월일, 성별 등의 인적 정보 조사는 아쉬운 부분임. 장애인 참여자와 장애인 관객이 자신의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공연과 전시를 관람하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세심한 이해와 배려가 우선시 되어야 함.

접근성 워크숍 및 평가회의



일 시 : 2025. 11. 25(화) 14:00 ~ 16:00

장 소 : 완주문화재단 커뮤니티실

강 사 : 권주리(아주 특별한 예술마을 대표)

참여인원 : 총 22명

내 용 : 2025 무장애예술축제 '서로' 경계를 넘다 접근성 피드백

- 무장애·접근성의 개념 이해
- 국내 장애예술 축제 접근성 사례 공유
- <서로-경계를 넘다> 축제 운영 과정 돌아보기
- <서로-경계를 넘다> 축제의 접근성 점검
- 향후 축제 발전을 위한 개선 방향 및 실천 방안 논의

목 적 : 무장애접근성에 대한 기본 개념과 국내 장애예술 축제 사례에 대한 강의를 통해 공통 이해를 형성하고, 2025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의 접근성 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향후 축제 운영에 반영 가능한 개선 방향과 실천을 모색하고자 함.



03

**축제를 준비하며
만나다
_인터뷰**

축제를 준비하며 만나다 (인터뷰)

*늘푸른그림홀



유연주 (보석십자수, 민화)

Q. 축제에 전시하는 작품은?

우리 가족사진, 천사의 눈물이에요. 보석 십자수예요.

Q. 보석십자수를 작업한 이유는?

그냥. 재미있어서요.
땅하고 하늘하고 다 사랑해요.

Q. 보석십자수 놓을 때 마음은?

재미있었어요. 진짜로 행복, 보람 있었고.

Q. 작품을 만들면서 어려운 것은?

노란색, 파란색 색상 구분이 잘 안 됐어요. 진짜로

Q.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한 것은?

열심히 할 때

Q. 축제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은?

엄마요. 동생들이랑
사랑해요.

*다애공동체

정연아 (그림)

Q. 축제에 전시하는 작품은?

저는 서울에서 여행 갈 때 풍선 옆에서 풍선 그린 거를 사진 찍은 걸 여러 가지 색연필이랑 물감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Q. 풍선을 그린 이유는?

그리고 싶었어요. 수박하고 풍선을 그림을 그리고 그 것을 제가 그렸어요.
수박을 그릴 때는요. 그림 그릴 때가 좀 약간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완성돼서 기분이 좋았어요.

Q. 다른 사람들이 그림을 본다면?

잘 그렸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칭찬받고 싶어서요.
다음에는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 고양이를 그리고 싶어요.

Q. 나에게 그림 그리는 것은 어떤 의미?

그림 그리는 게 제가 제일 행복해요. 제가 그림 그릴 때는 거기서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중학교 때 특별한 활동 때 미술부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림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Q. 축제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은?

여기 선생님들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제가 그린 거 전시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정연아

김은숙 (수필)

Q. 축제에 전시하는 작품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 다애공동체 소개하는 거. 여기 다애공동체에서 에어로빅도 나갔고 그거 수필을 썼어요. 자립생활을 위해서 체험 생활도 하고 있고 등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Q. 글을 쓰면서 어려운 점은?

글씨를 쓰면서 그 받침이 있는 글자가 어렵고 힘들었어요. 글이 잘 안 써지면 음악을 듣기도 하고 핸드폰 네이버 찾아봐서 글을 어떻게 잘 쓸 수 있는지 찾아보기도 해요.



김은숙

Q. 글을 읽어주고 싶은 사람은?

세상에는 글씨를 잘 못 쓰는 사람도 많고 글씨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 다른 사람들에게 글씨는 이렇게 쓰는구나. 알려주고 싶어요.

Q. 나에게 글을 쓰는 것은 어떤 의미?

글을 쓰면 기분이 좋아지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요.

정은아 (사진)

Q. 축제에 전시하는 작품은?

풍경 사진이요. 하늘이 맑았을 때나 흐렸을 때 구름이요. (중간생략)

Q. 앞으로 찍고 싶은 사진은?

산에 있는 나무들이나 식물들을 찍고 싶어요. 초록색은 마음이 안정되니까요.

Q.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은?

사진 잘 찍었어. 진짜!!

Q. 나에게 사진 찍는 것은?

기분이 좋아요. 핸드폰으로 사진 찍는 거 좋아요.



정은아



*마루발달장애인지간활동 서비스센터



유도담 (댄스)

Q. 춤출 때 기분은?

좋아요. 춤추는 거 너무 좋아해요. 팔이랑 다리랑 운동 되고, 춤도 추는 거! (중간생략)

Q. 축제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은?

저희 엄마 아빠요. 우리 센터장님. 센터장님.

Q. 사람들이 나의 춤을 본다면?

같이 응원했으면 좋겠어요!!

양지수 (그림)

Q. 누구를 그리고 있나요?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Q. 엄마 그릴 때 마음은?

행복해요. (중간생략)

Q. 그림 그릴 때 마음은?

좋아요. 재밌어요.

이점이 (설치미술, 공동작품)

Q. 무엇을 접고 있나요?

꽃 접어요.

Q. 종이 접기 할 때 마음은?

좋아요. 재밌어요. (중간생략)

Q. 좋아하는 색깔은?

하늘색 좋아해요.

박서희 (설치미술, 공동작품)

Q. 무엇을 접고 있나요?

하트를 접고 있어요.
전시회 하려고요.

Q. 하트 접을 때 마음은?

좋아요. 너무 좋아요.
행복한 마음 들어요.

Q. 하트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 사람은?

엄마 사랑해요. 하고 싶어요.

Q. 엄마에게 듣고 싶은 말은?

잘했다! 서희야~ 예쁘다!! 서희야~

* 문화공동체 아리아리



신경순



양인선



김재이

신경순 (영상_다큐멘터리)

Q. 축제에 상영되는 영상은?

가족들한테 보내는 편지에 대해 영상을 담아 봤어요. 언니 이야기요.

Q. 영상 제작은 나에게 어떤 의미?

언니 어릴 적 추억들을 떠올리면서 고마웠던 언니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어요.

Q. 영상이 상영이 될 때 기분은?

생각보다 더 잘 된 것 같아서 뿌듯해요.

Q. 영상을 찍을 때 어려운 것은?

실수할까 봐 두려웠어요. 엄청 떨렸어요. 잘 보이고 싶어서 화장도 하고 영상을 찍었어요.
자신감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몇 번 찍다 보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Q. 앞으로 만들고 싶은 영상은?

예전부터 CBS에서 하는 인간극장이라는 프로를 듣는데 나도 인간극장처럼 나의 편안한 내용으로 나의 영상을 해 보고 싶어요.

양인선 (영상_다큐멘터리)

Q. 축제에 상영되는 영상은?

어떻게 상영될지는 모르지만 기대가 많이 됩니다. 언니가 많이 응원해 줄 것 같아요. 언니와 함께했던 추억들을 영상 편지에 담아봤어요.

Q. 영상이 상영이 될 때 기분은?

영상을 찍었을 때는 아직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영상 찍을 때 만족스러웠어요. 언니랑 제가 한마음이 된 것 같아요.

Q. 영상을 찍을 때 어려운 것은?

잘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언니가 나를 생각해서 찾아올 것만 같아요.

Q. 영상 제작은 나에게 어떤 의미?

영상을 제작할 때 언니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었으며 집에 살림하는 모습을 보면 참 믿음직스럽다고 느껴졌어요.

Q. 앞으로 만들고 싶은 영상은?

나의 첫사랑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고 싶어요.

Q. 축제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은?

선생님들 선생님들과 환우들

김재이 (회화)

Q. 축제에 전시하는 작품은?

원래 제가 친구가 없었던 사람인데 동네에 친구가 생겼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래서 찍어준 거를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 제가 그래서 그런 모습을 그리고 싶더라고요.

Q. 그림을 그릴 때 행복한 것은?

그림 그리고 있으면서 고요하면서 또 음악을 때로는 음악을 들을 때도 좋는데 딱 멈춰져 있는 시간들이 좋더라고요. 평온해 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 그릴 때도 좋고 굳이 안 들어도 평온한 상태여서 그리고 뭘 해나간다는 것 같고, 내가 뭘 해나가는 거고 사실 학창시절 때 고등학교 때랑 공부를 정말 잘하고 싶었거든요. 열심히 그러지 못했는데 심취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림도 내가 보는 세상은 되게 아름다운데 솔직히 전시회 같은 데 가면은 그대로 담은 그림을 잘 못 보거든요. 자연을 그대로 담는. 그래서 나중에는 풍경을 아주 잘 그리고 싶어요.

(중간생략)

Q. 축제를 기다리는 이유는?

어울릴 수 있으니까 어울릴 수 있어.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아직까지는 전시회를 한 적도 없고 근데 그래도 관심 가져주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그게 정말.

* 예수재활원



히구은 (그림)

Q. 축제에 전시하는 작품은?

아크릴로 요양보호사를 그렸어요. 할머니를 도와주는 거요.

Q. 그림을 그릴 때 마음은?

완성된 걸 보니까 기분이 뿌듯했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좋았어요.

Q. 칭찬을 듣는다면 마음은

부끄러워요. 숨고 싶어요.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Q. 그림을 그릴 때 행복했던 것은?

색깔을 입힐 수 있어서 입히니까 너무 아름답고 예뻐요.

Q. 앞으로 그리고 싶은 그림은?

소중한 사람들을 그리고 싶어요.

양단영 (그림)

Q. 축제에 전시하는 작품은?

제가 그림은 제빵사 그림이에요.

사람들에게 제가 만든 빵을 사람들에게 사람에게나 이웃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Q. 그림을 그릴 때 마음은?

그리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고 참 행복했습니다.

Q. 다른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은?

그림을 어떻게 그렸을까 고민을 많이 해요.

그런 생각하며 그림 감상해 줬으면 좋겠어요.

Q. 그림 그리는 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

그림을 그리면 마음이 후련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Q. 앞으로 그리고 싶은 그림은?

그림을 그리고 싶고 바리스타도 배우고 싶고 다양하게 배우고 싶어요.

양희훈, 하구은, 하구혜, 허은지, 홍귀범 (풍물)

Q. 풍물은 언제부터 시작했나요?

하구은 : 다 2008년부터 배웠어요.

Q. 징 칠 때 마음은?

허은지 : 징 치는 것은 첫 박을 막 맞춰야 되니까 그게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연습하고 있으니까.

실력이 옛날에는 그렇게 징을 첫 박에 잘 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징을 잘 배워서 칠 수 있어서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Q. 팽과리 칠 때 마음은?

양단영 : 팽과리를 치다 보면 박자를 맞추면서 치는 거예요. 치면서 박자를 못 치면 바지 치면서 맞히면서 치는 거예요. 근데 맨 처음에는 팽과리를 못 쳤지만 점점 실력이 쑥쑥 자라.

Q. 장구 칠 때 마음은?

하구혜 : 기분이 좋아요. 오늘 신나게

하구은 : 그냥 하늘로 날아갈 정도로 기분이 좋은데 스트레스가 확 날려버리는 기분 같아요.

Q. 북을 칠 때 어려운 것은?

양희훈 : 따로 할 때는 어려운데 좀 힘 빠질 때도 있고 힘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홍귀범 : 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치고 있어서 쉬우면서 어려워요. 힘들 때 조금 있어요.

Q. 풍물하면서 즐거운 것은?

허은지 : 무대 위에서 공연이 있을 때가 가장 즐겁고 흥겨운.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 무대 위에 설 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이렇게 점점 연습하면서 무대 위에서 이렇게 공연도 하고 다른 관객들한테 이렇게 보여주니까 관객들도 신나고 공연에서 너무.

하구은 : 연습을 하면서 풍물을 하니깐 제일 재밌어요. 무대도 서고 사람들도 다 쳐다보고 하니깐

양단영 : 관객들이 나와서 같이 춤을 추는 게 가장 즐거웠던 것 같아요.

Q.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의 반응은?

홍귀범 : 박수

하구은 : 환호를 해주면 좋겠고

양단영 : 함성이랑 나와서 같이 춤을 추는 것 같아요. 마음이 상쾌하고.

Q. 축제를 기다리는 이유는?

양단영 : 체험이랑 할 수 있어요.

허은지 : 공연할 수 있어요.

하구은 : 다른 사람들 공연하는 거 볼 수 있어서요.

Q. 축제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은?

허은지 : 가족들을 초대하고 싶어요. 가족들끼리 같이 와서 참여하고 놀 수 있으니까 더 좋아요. 흥겹고 이렇게 같이 먹거리도 하고 체험도 하고 같이 춤도. 그래서 초대하고 싶어요.

양단영 : 가족들이요.

하구혜 : 가족들



✳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조정지 (글쓰기_문학)

Q. 축제에 전시하는 편지는 누구에게 썼나요?

아들한테 썼어요. 장난꾸러기 아들 고집쟁이 아들. 그렇게 썼어요. 아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Q. 편지를 보는 아드님의 마음은?

좋아하겠죠. 우리 엄마가 글씨를 몰랐는데 조금이라도 알면 우리 엄마가 대견하다 그러겠죠.

Q. 글을 배우며 좋은 것은?

그냥 내 손으로 글씨도 쓰고, 내 이름도 쓰고, 군 이름도 쓰고 그리고 내 아들 이름 편지도 쓰고 그런 게 좋아요. 한 자 한 자 잘 안 들어가도 쓰려고 연구를 하지.

정금옥 (글쓰기_문학)

Q. 글을 배우며 좋은 것은?

나이는 86이나 됐어. 이제 공부해서 뭐 하겠어. 근데 내 이름이라도 쓴 게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어디 아파 가지고, 그 중에 디스크 수술해서 손가락질도 못 했어. 연필도 못 잡아 지금 진짜. 그런데 선생님들이 원체 1년 좀 글씨를 쓰는데 금방 까먹고 까먹고 그러. 그게 뭐 놀러 다니지. 내가 이리 배워서 뭐 하겠어요. 몸이나 걸음이나 걸으려고 땀겨요.

(중간생략)

많이 좋아졌어. 여기 복지관 다니면서 많이 좋아졌어. 말이 그렇지 10년도 더 땀겨는데 운동하고 그러고 다녔지. 그래도 많이 배웠지. 글자를 읽을 줄 아는 게.

어디 가서 간판도 보고 어디 가서 내 이름 쓰려면 그냥 안 떨리고 쓰고 그게 좋지. 그리고 뭐 핸드폰이나 보고 문자라도 보고 이제 그런 게 좋지. 그게 감사해.

박양례 (글쓰기_문학)

Q. 축제에 전시하는 편지는 누구에게 썼나요?

우리 남편한테 하늘에 있는 남편한테 많이 안 좋아서 가셨거든. 그래서 그곳에서는 아프지 않고 편안히 잘 계시는지. 나는 이곳에서 좋은 선생님 만나서 공부도 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니 여기는 다 잊고 만날 때까지 잘 계시라는 그런 뜻으로 쓴 거지.(중간생략)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많이 고생을 하셨으니 어머니 희생으로 내가 있어. 이 세상에 그런데 보답을 못 했거든.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런 축제 같은 거 할 때 내가. 지금 살아계신다면 보여드렸으면. 아 3일 업어다주고 다녀왔는데 못 배우고 까막눈으로 살았는데 글도 쓰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하니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배춘지 (글쓰기_문학)

Q. 축제에 전시하는 편지는 누구에게 썼나요?

돌아가신 친정어머니. 글을 모르면 한. 그런 한. 또 부모에게 효도도 못한 한. 그런 것이 막 쌓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늦었지만 글을 배우니까 이렇게 편지도 쓰고 이렇게 좋은 시간 좋은 세상을 만나서 좋지 좋아 아주 좋아. 우리 엄마는 못 봤어도 딸은 이렇게 본 게로 그래도 하늘나라에서 좋아하실 테지. 우리 엄마 지금 있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

“이가 없이 사셔서 제가 일을 해 드리기로 했는데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낫설고 물도 설은 곳으로 저를 보내고 걱정 근심 떠날 날이 없이 사셨죠. 엄니 못난 딸이 이제 한글을 배워서 편지를 올립니다. 세상은 변해서 전화도 마음대로 하고 그런 세상을 못 보니 아쉬워요. 어머니 시집 식구들이 글을 모른다고 무시했어요. 슬픈 시간이 많았어요.”

이현숙 (글쓰기_문학)

Q. 축제에 전시하는 편지는 누구에게 썼나요?

친정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그래 아버지 그곳은 사는 게 지금 현실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묻고 싶고 아버지가 있었다면 내가 이 생활이 달라졌을 건데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 우리 남매를 낳아놓고 가셨는데 거기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아버지를 생전에 살아서 내가 있을 때 불러보지 못했어요. 아버지라고 한 번도 못 불렀기 때문에 편지 쓰면서 아버지를 많이 불렀어요. 내가 가슴에 사무쳤던 그 부모의 그리움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 계속 부르면서 진짜 이렇게 글을 배우면서 아버지를 실컷 불러봤어요. 그랬어요. (중간생략)

우리 복지관에 또 팀장님이 저를 잘 이끌어주셔서 가지고 얼마든지 나와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자신이 있어 갖고 계속 나와요. 이제 한글도 열심히 배우고 저기 쌍자 들어간 것은 잘 몰라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조금씩 터덕터덕해서 많이 배우는 중이에요.

이인순 (댄스)

Q. 춤추면 좋은 것은?

살 빠진 거. 좋아요. 다요.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이쁜. 살 빠지면 이쁜 옷 사 입고 싶으니까 (중간생략)

Q. 축제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은?

가족하고 관리사한테 잘한다고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정미지 (댄스)

Q. 춤추면 좋은 것은?

운동도 되고 스트레스 풀어서 좋아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중간생략)

Q. 춤출 때 기분은?

마음이 긴장되고 떨려요.

Q. 사람들에게 듣고 싶은 말은?

칭찬. 친절하게 칭찬. 잘 한다고. 잘 했다고. 멋지다. 최고! 최고!

Q. 축제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은?

활동 보조. 활동 보조. 운동 선생님 있어요. 좋아하니까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김정임 (댄스)

Q. 춤추면 좋은 것은?

빼빼해져요. 신나요.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운동해야~

Q. 좋아하는 곡은?

담다디 담다디

Q. 춤출 때 사람들은 마음은?

많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박수. (중간생략)

Q. 축제를 기다리는 이유는?

사진 찍어요. 아줌마 많이 와요.

Q. 축제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은?

강혜옥 선생님. 다 선생님



최명지 (댄스)

Q. 춤추면 좋은 것은?

춤추는 게 행복해요. 춤추는 거 설레고 좋아하니까
즐겁고 신나고 좋아하니까. 살 빠지고 튼튼하니까

Q. 좋아하는 곡은?

트로트 좋아하는 거 있어요. 가수는 주현이의 첫사랑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두근두근 아 사랑했나 봐. (중간생략)

Q. 축제를 기다리는 이유는?

기다려져요. 박수치는 거 좋고. 이용자랑 같이 추는 게 좋고 박수 치고 좋았어요. 신났고

Q. 축제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은?

다영이, 혜영이, 할머니, 엄마까지 신나요. 좋아요.



*완주군수어동역센터



이오순 센터장 (수어통역)

Q. 완주수어통역센터는?

완주수어통역센터는 완주지역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서비스, 상담, 수어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세상과 소통하는데 앞장서고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Q. 축제에서 맡으신 역할은?

저희 기관은 축제에서 작품별 수어소개 영사 및 제작 축제 통역과 부스 운영을 맡았습니다. 청각장애인들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축제를 통해 청각장애인과 수어에 대해 홍보를 할 수 있어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 은혜의 동산



한경희 (공예)

Q. 축제에 전시하는 작품은?

아크릴 모빌 그거 할 거예요. 아크릴을 묶어서 그 장식 하는데 그거 할 거야.

Q. 축제를 기다리는 이유는?

어떻게 하려나 그것도 생각나고 또 나만 못한 거 아닌가 보다 생각 들고. 나보다 더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한 거 보면 잘했다 그런 말 한마디도 하고 (중간생략)

비만 안 오면 돼. 비만 안 오면 완전 천국이죠. 다들 좋아서 웃느라고 정신없지

정우성 (원예)

Q. 축제에 전시하는 작품은?

어린이 동화 중에 무지개 물고기라는 동화가 있는데 무지개 물고기라고 표현했습니다. 캔버스 위에 스텝프쳐 페인팅 기법으로 표현했습니다.

Q. 작품을 만들 때 마음은?

제가 무지개 물고기라는 동화를 몰라가지고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신기하는 거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뭔가 좀 잘 한 것 같기도 하고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어디가 좀 모자란 것 같기도 한데 잘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기분이었어요.

Q. 축제를 기다리는 이유는?

1년 내내 한 걸 가서 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과연 내가 한 걸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 이랑협동조합



최대희 (이랑협동조합 센터장)

Q. 이랑협동조합은?

이랑 협동조합은 맨 처음에 친구 3명에서 같이 시작을 했어요. 특수 교사 입장에서 치료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돈보다 더 중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직접 한번 해보자. 한 1년 정도 준비 과정을 가지고 관련 자격증도 취득하고 1년 정도 준비해서 완주군 내려오게 됐죠. 3명이 시작해서 지금 14명에서 하고 있습니다.

Q. 토크콘서트의 취지는?

가족 캠프라든지 비장애 형제를 위한 어떤 캠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죠. 부모님들하고 주말 농장도 하고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던 와중에 어느 날 캠프에서 부모님들이 장애 아이도 장애아이지만 비장애 형제에 대한 걱정이 크다. 내 아이가 상처받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뭔가 어둠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중간생략) 첫 번째 토크쇼는 학창시절 때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결혼에 대한 이야기, 앞으로 준비를 할 거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를 했었는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점점 커가고 고등학생 사춘기에 들어서고 하니까 실제로 대학교 들어가서 연애를 시작하고 하니까 또 현실적인 부딪히잖아요. 그 다음 얘기 좀 듣고 싶다고 하셔서 용기를 냈습니다.

Q. 앞으로 이랑협동조합은?

가족 옆에 항상 있고 싶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그 가족 옆에 힘이 되는 그런 어떤 존재가 되고 싶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는 아이들 부모님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큰 사업체가 아니어도 작은 편의점이어도 어떤 작은 가게여도 아이들이 직접 일을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직접 힘으로 하고 싶어요. 이런 꿈을 가지고 가족들 옆에서 함께하는 이랑이 되고 싶습니다.



04

함께 전한 이야기

함께 전한 이야기

「함께 전한 이야기」는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의 의미와 여정을 외부의 시선과 기록을 통해 다시 만나는 장이다.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기 만든 협력의 과정 모두 함께 참여하고 서로 같이 즐기는

글 | 이승철 (예수재활원 원장 /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 추진위원장)

2023년 완주문화재단과의 만남이 시작됐다.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이 보이고 들리길 원하는 목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온다. 기쁘고 반가운 소식이다. 사회복지사로 20여 년을 장애인의 삶에 함께해왔다. 2005년 초년생 사회복지사였던 나와 장애인들과의 첫 만남을 떠올린다. 초등학교에 다니던 작고 여린 아이에서 어느덧 훌쩍 자라 성인이 된 이들 이야기로 시작해 내 삶에서의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 처음 만났을 때 이들은 피아노, 풍물, 미술 등 다양한 배움을 시작하고 있었는데, 우왕좌왕 좌충우돌 나름의 어렵고 고단한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20여 년이 지나 이제 멋진 열매를 맺고 있다. 풍물단은 임실필봉농악을 계속 배워 다수의 대회에서 다양한 성취를 이루고 있다. 무대 위에 선 이들의 모습은 즐거움과 기쁨으로 가득하다. 볼을 타고 심 없이 흘러내리는 뜨거운 땀방울이 그 즐거움의 증거이다. 피아노를 배우던 아이는 대학원에 진학해 전문교육을 받고 역량을 키워 이제는 장애인합창단의 반주자로 당당하게 자리매김하며 자신의 직업을 갖고 살아가고, 어떤 이는 다양한 전시회를 통해 작가로서 작품을 대중에게 알리고 있다. 내가 근무하는 복지시설의 이야기이다. 다른 장애인 예술인 역시 이러한 일련의 경험과 문화예술 활동을 이어오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만들어왔을 것이다.

완주문화재단과 함께 열어온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는 그 과정과 열매를 함께 보고 공유하고자 시작한 자리이다. 처음 이야기를 시작할 때 우리는 축제를 이렇게 정의했다. 장애의 정도, 영역 등 어떠한 것도 관계없이 마음껏 우리의 문화예술 활동을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들려줄 수 있는 자리라고. 우리는 그런 무대를 여는 것에 집중하고자 마음을 모으고, 작더라도 충분히 우리의 놀 자리를 만들어 보고자 했다. 그렇게 축제는 시작되었다. 모두가 참 재미나고 행복했다. 알콩달콩 재미있는 문화예술의 흔적이 무대에서, 전시 작품에서, 그리고 영상을 통해 드러났다. 축제에 참여한 모두가 축축하게 젖어드는 시간이었다. 그렇게 우리들의 첫 축제는 마무리되었다.

이듬해 2024년, 두 번째 축제를 생각하며 우리는 또 다른 고민을 하게 되었다.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했던 이들의 놀 자리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에서 나아가, 비장애예술인과의 소통을 통한 문화예술 교류를 생각했다. 그리고 장애인 예술인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기로 했다. 많은 시간 많은 모임을 가지며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축제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그 색깔을 입혀보기로 했다. 여러 차례의 모임을 통해 축제의 흐름을 계획하고, 개막 퍼포먼스를 당사자들의 이야기로 꾸몄다. 이들이 생각하는 장애의 벽을 글로 쓰고 벽을 세웠다. 그리고 권투글러브를 낀 당사자가 그 벽을 박살 내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로 다가온 시간이었다. 첫 번째 축제 때보다 더 다양한 장애인 예술인의 이야기를 듣고 볼 수 있었다. 비장애예술인들과 함께하는 무대도 구성했는데, 모두가 함께 벽을 허물고 즐기는 멋진 시간이었다. 그렇게 두 번째 축제는 또 다른 깊은 의미를 담은 멋지고 행복한 축제로 진한 여운을 남기며 막을 내렸다.

2025년에는 여러 상황으로 한참 뒤에야 세 번째 축제를 위해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댔다. 이번 축제는 참여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전적으로 계획하고 만들어가는 축제였으면 좋겠다는 난감하고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되었다. 그 취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기에 더 많이 고민했던 것 같다. 먼저 추진위원회를 꾸렸다. 앞서 두 번의 축제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올해도 참여를 원하는 기관과 단체 위주로 꾸려졌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축제의 큰 흐름을 이야기하고 나누기로 했다. 그리고 기획단을 꾸렸다. 기획단에는 장애인 예술인, 사회복지사 등이 모였고, 구체적이고 세세한 부분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 나는 두 번의 축제를 함께했고 축제에 참여하는 장애인 예술인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아름다운' 이유로, 덜컥 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어쩌면 지금까지 인정할 만큼 열심히 하지 않았으니 열심히 하라는 의미였을지도 모른다. 참으로 난감했다. 문화예술을 알지 못하는 내가 축제 추진위원장이라니. 그렇게 추진위원회와 기획단이 꾸려졌고, 촉박한 시간 안에서 세 번째 축제를 만들어야 했기에 우리는 열심히 모여 이야기했고, 하나하나 퍼즐을 완성해 갔다.

세 번째 축제는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가 되었으며 좋겠다는 의견이 모였다. 장애인 예술인의 참여와 더불어 비장애 예술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더 풍성한 문화예술 활동 과정과 열매가 무대에서 빛을 발할 수 있도록 고민했다. 무대와 객석의 안전 및 편의에도 더 집중했다. 볼거리가 있고 즐길 거리가 있는 축제라는 점에도 무게를 두었다. 이전 축제에서 긍정적 반응을 얻었던 전시 작품의 소개글과 수어 영상을 제작해 QR코드를 통해 볼 수 있게 했다. 장애인 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과정을 담은 영상도 제작해서 상영했다. 모두가 즐기는 축제였기에 함께할 관객도 필요했는데, 축제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의 협조가 큰 힘이 되었다. 그들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다양한 관객이 참여할 수 있었다. 완주문화재단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효과를 배가시켰다. 완주문화재단에서는 어떠한 사항이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했고, 심 없이 노력하며 그 과정을 만들어갔다. 정말 든든했다. 아울러 숨은 조력자들의 노고도 만만치 않았다. 축제 진행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애써준 이들의 땀방울이 있었기에 올해 축제도 성공적으로 막을 올릴 수 있었다. 일일이 거론할 순 없지만, 귀한 애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5년 11월 4일 개막식과 공연을 마쳤고, 이제 11월 16일까지 전시가 진행된다. 장애가족을 둔 비장애 형제들의 이야기로 토크콘서트도 준비되어 있다. 이번 축제 여정에 마침표를 찍는 날, 축제를 준비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까 생각해본다. 몽클한 뭔가로 꼭 안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을까. 모두가 함께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준비한 잔치이기에 모두 같은 마음일 거다. 축제는 아직 마침표를 찍지 않았지만, 어느새 우리는 '네 번째 축제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있다. 아마 축제에 대한 우리의 기대가 점점 커가고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가 고유한 완주만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길 소망해 본다. 축제를 통해 장애·비장애의 경계를 넘고, 나아가 장애·비장애를 전혀 구분할 필요 없는, 모두가 여는 사람이 되는 시간이 오길 소망한다. 그 역할을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가 할 수 있기를, 지금까지처럼 우리 모두 함께할 것이기에 가능하리라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6년, 네 번째 축제는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기대와 설렘으로 그 시작을 기대해 본다. 우리만의 축제가 아닌 모두의 축제가 되어갈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이기에!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웹진 이음 2025. 11. 19.

* 본 원고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웹진 「이음」(2025.11.19.)에 게재된 이승철 추진위원장의 글을 전재하였습니다.

2025 원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의 일원으로 참여하며

글 | 임평화 (은혜의 동산 원장 / 원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 추진위원회 구성원)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어디에 있을까?”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30년이 되도록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곁에서 지켜보며 나는 이 질문을 늘 마음속에 품고 살아왔다. 누군가는 부유함을, 누군가는 건강함을 이야기하지만 장애인과 함께한 현장에서 내가 본 ‘행복한 세상’은 거대한 약속이나 대단한 제도 속에 있지 않았다. 그 세상은 아주 작은 가능성이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그 순간 문을 열고 조용히 다가왔다.

20년 전의 일이다. 식사 도움을 드리던 한 중증 뇌병변 장애인이 강직된 몸을 힘들게 움직이며 띄엄띄엄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 제주도 비행기 한번 타보고 싶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바닷물은... 정말 짜다고. 그걸... 나도 제주도에 여행가서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그 말은 희망이라기보다, 평생 자신의 소망을 말할 기회조차 없던 사람이 마지막으로 꺼낸 용기였다. 그분은 거의 누워 지냈다. 그가 만나는 세상은 TV 속 화면으로만 존재했고 파아란 바다는 늘 남의 이야기였다. 그날 나는 알았다. 누군가에게 세상은 평생 닿지 못할 먼 풍경일 수 있다는 것을. 그 거리의 깊이가 나를 아프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결심했고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갔으며 한 바닷가 백사장 모래위에 휠체어를 힘겹게 밀고 나아가 미리 준비한 작은 컵에 바닷물을 떠서 건넬 때 그분은 한모금 머금고는 굳은 입술을 떨며 웃었다. “...바닷물 정말 짜네요. 진짜... 짜요.”

그 짧은 문장 속에는 평생 누군가가 대신 말해주던 세상을 처음으로 자신의 감각으로 확인한 기쁨이 담겨 있었다. 그분은 얼마 후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 미소는 내 20여년의 사역을 흔들림 없이 버티게 한 가장 단단한 이유가 되었다.

“누군가에게 평생의 처음을 만들어 주는 일, 그 처음이 마지막 기쁨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그 깨달음이 나의 직업이 아닌, 나의 소명이 되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도 여행뿐 아니라 문화 예술에 대한 참여 욕구가 많지만 그 당시 시설의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직원의 부재로,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지원에 충실했지만 항상 아쉬움은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생활 향유였다. 특히 문화예술의 주인공으로 선다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멋진 일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들이 시설과 가정에서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하고, 오랜 기간 축제 무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연습하며, 정성을 드려 자기가 만든 작품을 전시회를 통해 예술 작가로 등단하는 일 들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말 제주도의 바닷가 짠물 맛을 실제로 경험하는 것, 보다 더 의미 있고 행복한 일이다.

원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 - 우리가 바라던 세상이 잠시 현실이 된 날

그래서였을까. 올해 열린 ‘서로’ 축제는 나에게 단순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날만큼은 장애와 비장애를 나누는 오래된 선이 희미해졌다. 우리는 2023년부터 원주문화재단과 지역의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시설, 장애인 단체들이 서로 하나로 뭉쳐 장애인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문화 예술의 무대를 만들어보자라고 의기투합을 했고 해를 거듭하면서 성장하고 발전해왔으며 그 축제 중심에는 장애인들이 있었다. 기획자로 공연과 전시의 작가로 함께할 때 얼굴에는 생기와 웃음이 가득하였다.

올해 축제 추진위원회가 처음 꾸려진 날, 출발부터 어려움이 있었다. 과연 두달 가량 남은 날동안 축제가 가능할까? 문화재단 인력의 교체로 국장님도 바뀌고, 직원도 초임이고 잘 될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앞섰다. 그러나 준비 과정을 진행하면서 그 중심에는 모든 책임을 꺼안은 이재정 국장님이 있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필요한 모든 것은 준비하겠습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었다. 준비 과정 하나 하나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서 이분의 추진력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몇날 며칠을 야근을 해야 했을 직원들의 수고와 추진단, 기획단의 적극적 참여로 염려와 걱정은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어졌다.

축제 전날, 문화재단 직원들과 추진 기획단들이 현장 점검을 꼼꼼히 진행할 때 장애인들이 불편없이 축제의 주인공으로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무대, 휠체어 좌석, 휠체어 통행로, 버스 간격, 차광막, 안전장치 체험, 먹거리 버스 준비 상황 버스 간격 하나까지 세심하게 점검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땀방울은 표면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 땀은 누군가의 웃음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었다.

축제 당일 리허설을 마치고 이젠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다.

축제의 시작!

장애인합창단 ‘꽃’의 하모니로 축제를 열었다. 노래 가사에서 ‘우린 할 수 있어요’ 라는 가사가 귀에 맴돌았다. 그들은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무대에 올렸다.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할 수 있어요.” 그 문장은 수많은 넘어짐과 다시 일어섬으로 만든 인생의 증언이며 선언이었다. 나는 축제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어요.

무대 주위에는 문화재단이 준비한 커피차량에서 따듯한 커피가 건네지고 정성으로 구운 봉어빵을 나누며, 여러 체험 부스에 참여하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서로 눈을 맞추었다. 앞에선 하모니를 선사하고 누군가는 춤을 추며, 누군가는 손을 흔들며 박자를 맞추었고, 몸의 움직임이 불편한 이들은 눈빛으로 음악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기쁨은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라”고.

참 행복한 시간이었고 장애를 잊고 비장애인들과 하나되는 서로 하나된 축제의 장이었다. 퍼포먼스로 준비한 두개의 박이 터지는 순간 주위에 퍼지는 것은 색종이 조각이 아니라 사람들의 행복이 넘치는 사랑의 감동이었다.

무장애 축제 ‘서로’는 서로의 다름을 잊고, 준비된 하나 하나의 장면 속에서 흔들리듯 어우러진 시간, 이 축제는 우리가 꿈꾸던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었다. 이 세상은 결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님을 증명했다. 짧은 준비 기간, 빠듯한 일정, 처음엔 “가능할까”라는 불안도 있었지만 눈물과 땀의 수고와 열정으로 마련된 행복한 우리의 축제 ‘서로’를 만들었다.

2025년의 축제 ‘서로’는 분명 우리의 추억속에 오래 남을 것이다. 햇빛, 바람, 손짓, 눈맞춤, 배려, 소리, 박수, 웃음 그 모든 것이 말해 주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은 미래의 어느 먼 곳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에 있다고. 장애와 비장애가 서로를 구분하지 않는 사회,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이유로 존재할 수 있는 공동체, 누군가의 작은 꿈이 잊혀지지 않는 세상. 축제에 참여한 우리는 이미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나는 다시 스스로에게 묻는다. “우리가 원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인가?” 그 답은 이제 분명하다.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던 마음, 서로를 밝혔던 눈빛, 흥에 겨워 넘실넘실 춤을 추고 노래를 함께 부르던 순간 그날 원주에서 우리가 함께 만든 그 풍경.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던 세상이다. 이 무장애 축제 ‘서로’가 지속가능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어우러져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세상 ‘서로’가 되도록 내년 행사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려 한다.

* 본 글은 원주문화재단 '장애인 문화예술 '서로' 관련 글을 일부 편집·재수룩한 글입니다.



05

보도자료 및 홍보



2025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경계를 넘다

'함께'어서 가능한, 공감토크콘서트

비장애 행재의 시선으로 본 삶과 사랑

2025. 11.15.(토) 10:00 ~ 12:30
복합문화지구 누에 실마리카페

일정	시간	내용
1부	9:30 ~ 10:00	사전신청 참가자 등록
	10:00 ~ 11:10	패널 공감 토크 1부 성형 과정에서의 경험 공유
축하공연	11:10 ~ 11:20	축하 공연 - 우크렐레 (양준호)
2부	11:20 ~ 12:30	패널 공감 토크 2부 연애, 결혼과 가족관계 이야기 질의응답 및 정중 참여 토크

출연진 소개

- MC : 작가 권주리
- 패널 : 영화감독 양준서, 특수교사 김신영, 크리에이터 서은백
※ 우크렐레 공연 '양준호'

참여기관 소개

- 주최주관: 완주문화재단
- 협력: 늘푸른그룹, 다예공동체, 마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문화공동체 아라리, 은혜의 동산, 예수재활원, 완주군수어용역센터,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이땅활동조합
- 후원: 완주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2025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 - 경계를 넘다'

개막식 및 공연

- 일정: 2025. 11. 4.(화) 14:00 ~
- 체험 프로그램: 2025. 11. 4.(화) 11:00 ~
- 장소: 복합문화지구 누에 컨디광장
- 내용: 다채로운 축제 개막식 공연 및 상시 체험 프로그램

01 공연 프로그램

개막식
완주장애인합창단 '꽃'
개막식 및 개막 퍼포먼스

1부
축하공연 - 완주 생문동 고고장구
마루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 찬란상 생활체육
문화공동체 아라리리 다우멘터리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내가 제일 잘 나가
축하공연 - 무용가 연운 진도복춤

2부
예수재활원 생장구
완주군장애인복지관 분이고
축하공연 - 조이올 타악 공연

02 체험 프로그램

체험
은혜의 동산 공예&원예 만들기
한국장애인부모회 완주군지부 한인 주부세계 만들기
청춘문화공간 미니 장구 만들기
세네인, 전통이름으로 체험하다
시선 및, 주아 할 집
완주 생문동 꽃예를 커피 만들기
완주 생문동 크리스탈 문진 만들기
완주 생문동 영화 티크로스트 만들기

행매인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인인 행매인
완주군수어용역센터 수어 체험

박거리
늘푸른그룹 미니 영어행 날씨 따라오면 여기가 맞아요.
오늘의 커피, 여기에 있어요!

전시회

- 일정: 2025. 11. 4.(화) ~ 11. 16.(일)
- 장소: 복합문화지구 누에아트홀 1, 2전시실

토크콘서트

<'함께'어서 가능한, 공감 토크콘서트>

- 일정: 2025. 11. 15.(토) 10:00 ~ 12:30
- 주제: 비장애 행재의 시선으로 본 삶과 사랑
- 장소: 복합문화지구 누에 실마리카페

참여기관 소개

- 주최주관: 완주문화재단
- 협력: 늘푸른그룹, 다예공동체, 마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센터, 문화공동체 아라리, 은혜의 동산, 예수재활원, 완주군수어용역센터,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완주군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이땅활동조합, 완주군지원센터
- 후원: 완주군,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홍보 영상



[메인 홍보영상]



[인터뷰 영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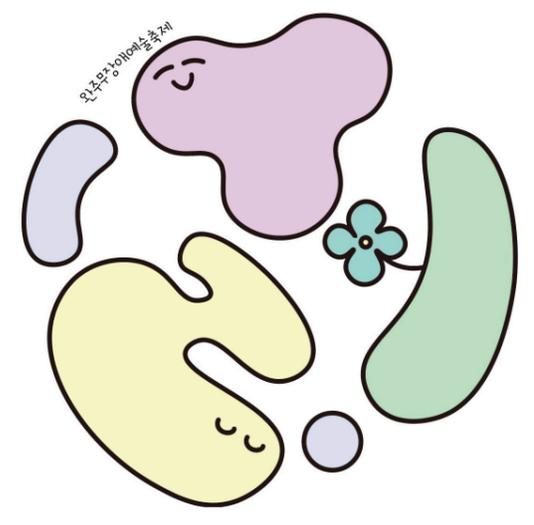


[작품해설 수어통역 영상]



[아카이브 영상]

로고와 굿즈



[로고]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의 로고는 글자를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보다, 서로를 안아주고 바라보는 듯한 유기적인 형태로 표현함. 각 요소는 독립된 존재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을 통해 만나고 관계를 맺는 축제의 의미를 담고 있음.



[로고를 활용한 굿즈]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의 로고를 활용한 굿즈는 축제의 정체성과 메시지를 일상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축제 참여자와 관객이 '서로'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구성됨.



06

축제를 마치며

축제를 마치며

글 | 박은주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 접근성 매니저)

지난 11월 4일 화요일 복합문화지구 누에 잔디광장에서 2025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가 개최되었다. 세 번째 열린 축제의 주제는 '경계를 넘다'로 우리를 나누던 모든 '경계'를 넘어 예술로 하나 되는 시간을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장애인 기관과 단체, 장애예술인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와 기획단이 축제의 기획부터 전 프로그램을 기획, 접근성 점검 등 과정에 참여하며 '모두가 함께 만드는 축제'의 의미를 깊이 느끼게 되는 경험이었다.

장애인합창단 '꽃'의 합창과 개막 퍼포먼스 '박 터트리기'로 축제의 흥을 돋우며 개막식이 시작되었다. 94명의 장애예술인이 풍물, 영상, 댄스 공연과 체험, 회화, 공예, 글쓰기, 사진, 설치미술 등 다채로운 작품을 선보였고, 15명의 전문예술인이 축하공연으로 함께 어울려 즐기는 축제의 장이 되었다. 마지막 일정 '함께'여서 가능한 공감 토크콘서트는 '비장애 형제'라는 키워드로 이야기 나누며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시간이었다.

장애로 인해 축제 참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접근성 서비스도 운영하였다. 휠체어 이동 통로와 전용석을 따로 마련해 두었으며 공연관람을 위한 실시간 수어통역과 자막서비스, 점자 안내서를 제공하였다. 전시장에서는 전시 내용에 대한 음성가이드와 수어통역 영상도 준비하였고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활동도 실시하며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향유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였다.

축제 이후 접근성 피드백을 통해 2025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한 방향과 실천방법을 이야기 나누었다. 성인 발달장애인 참여자를 고려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작과 향유를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전시장에서 직접 예술을 경험 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풍물 공연, 장애인합창단, 기획단으로 활동한 장애인 당사자 허은지님은 "무대가 화려하고 흥이 나서 즐거웠고, 축제 기획단으로 참여해 서로 이야기 나누며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셨다. 참여자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 다수의 참여자가 활동할 수 있는 축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축제의 주체인 장애인들이 중심이 되어 목소리를 내는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무장애예술축제를 '서로'를 통해 완주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예술을 매개로 소통하며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확대되고 지속적인 활동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발행인 완주문화재단 이사장 유희태

발행처 (재)완주문화재단

발행일 2025. 11.

총괄 완주문화재단 상임이사 정철우

총괄운영 완주문화재단 문화예술사업국장 이재정

기획 완주문화재단 문화가치확산팀 김미소, 강민경

접근성 매니저 박은주

퍼실리테이터 양승수

함께 만든 사람들

(추진위원회) 강지현, 김언경, 김화순, 박은천, 배진숙, 송기준, 이승철, 이은용, 임평화, 최대희

(기획단) 김재이, 박경옥, 송예랑, 임정화, 허은지

주소 55352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용진읍 완주로 462-9

연락처 063-262-3955

홈페이지 www.wfac.or.kr/

본 책에 실린 글과 사진, 이미지는 저작권자와 (재)완주문화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